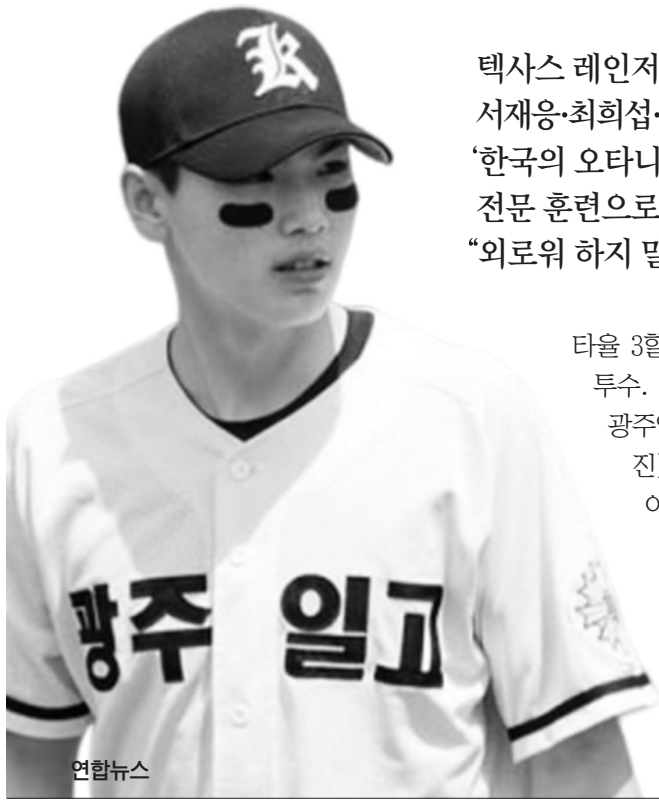


‘투타 겸업’ 김성준 미국행…광주일고 5호 메이저리거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 합의
서재응·최희섭·김병현·강정호 이어
‘한국의 오타니’ 탄생하나 기대
전문 훈련으로 큰 성장 가능성
“외로워 하지 말고 이겨내기를”

타율 3할, 시속 150km 강속구 투수.

광주일고의 김성준(18·사진)이 ‘투타 겸업’이라는 이례적 조건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 광주일고 출신으로는 서재응, 최희섭, 김병현, 강정호에 이은 다섯번째 메이저리거다.

광주일고 조운채 감독은 14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에 입단한다고 밝혔다.

계약금은 100만~130만달러(한화 약 14억원~18억원)로, 15일 출국해 도장을 찍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은 일본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처럼 투타 겸업을 하고 있다.

그는 수창초-충장중을 거치며 타격 유망주로 성장했고, 고교 진학 후에는 투수로도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받았다. 지난해 고교야구에서 투수로 14경기 3승 1패, 평균자책 2.65를 기록했고, 타자로는 28경기 타율 0.307을 기록하며 투타 모두 수준급 활약을 펼쳤다.

특히 KBO 10개 구단 스카우트의 1라운드 지명 유력 후보로도 꼽혔지만, 김성

준은 ‘투타 겸업’을 실현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행을 선택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처럼 투타 양쪽에서 동시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다.

김성준은 올해 초부터 메이저리그행 관심을 부쩍 드러내면서 그에 걸맞는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구속과 타율 향상으로 이어졌다.

조운채 광주일고 감독은 국내 무대에서 실력을 더 다져보길 권했지만, 제자인 김성준의 확고한 꿈과 의지를 지켜보며 결국 그의 선택을 지지하게 됐다.

조운채 감독은 “성준이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지만, 그의 재능과 꿈을 믿는다”면서 “투수로는 아직 선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만, 훈련 없이도 시속 150km를 던지는 천부적 재능을 지녔다. 전문적인 투수 훈련을 받는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감독은 이어 “야구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성준이에게 광주,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는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끝까지 잘해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1923년 창단한 광주일고 야구부는 서재응, 최희섭, 김병현, 강정호 등 한국에서 가장 많은 4명의 메이저리거를 배출해온 명문 고교로, 김성준의 이번 메이저리그 진출은 광주 야구 저력의 또 다른 증거이자, 지역 아마야구 전체에 긍정적 자극이 될 전망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세한대 유도부 김민성, 양구평화컵 +100kg급 금

안상민 -100kg급 동메달

세한대학교 유도부가 2025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동 메달을 따내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4일 세한대에 따르면 지난 7~12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민성(4년·사진)이 100kg이상급 결승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파워 넘치는 공격으로 장민석(용인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 진나해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안상민(3년)은 -100kg급 준결승에서 박상훈(경기대)에게 패하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노박환 세한대 유도감독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고, 훈련 방향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성장과 결과 중심의 훈련을 통해 더 높은 무대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프로축구 광주FC 산하 유소년팀 금호고 선수들이 2025 K리그 주니어 U18 C권역 U18리그와 U17 저학년 리그 동반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U18 금호고, K리그 주니어 C권역 동반 우승

U18 전반기 조기 우승 U17 저학년 리그 제패 유스 명문 저력 입증

프로축구 광주FC 산하 유소년팀 금호고가 K리그 주니어 무대에서 고·저학년 동반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유스 명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광주FC U18 금호고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금호고에서 열린 2025 K리그 주니어 U18 C권역 9라운드에서 경남FC U18과 1-1 무승부, U17 저학년 리그에서는 2-0 승리를 거두며 리그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다.

앞서 금호고는 지난 4월 26일 울산HD U18 현대고와 원정 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두며 U18 C권역 전반기 조기 우승(6승 1무 1패)을 확정지은 바 있다. 또 이번 저학년 리그 우승으로 구단 역사상 최초의 고·저학년 동반 우승이라는 새 기록을 세웠다.

특히 저학년 리그는 1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2위 전북현대 영생고를 제치고 5승 1무 1패로 정상에 오르며, 선수층 전반의 균형과 전력의 탄탄함을 입증했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 동반 우승은 구단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성과를 보여주

는 대표적 사례”라며 “결출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유스 명문답게 앞으로도 우수한 선수를 꾸준히 배출해 K리그를 넘어 한국 축구 유스 무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용 U18 금호고 감독도 “고교 축구 강호들이 몰려 있는 C권역에서 당당히 동반 우승을 이뤄낸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장배, K리그 유스 챔피언십, 고교 왕중왕전 등 주요 대회가 이어지는 만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팀 전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조선대·광주여대, 전국체전 배구 광주대표 선발

남·여 대학부 호남대에 완승

조선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배구부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광주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14일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배구협회에 따르면, 조선대는 지난 13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대부 광주 예선전에서 호남대를 세트스코어 3-0(25-20 25-13 25-16)으로 제압했다.

선수 전원이 고른 활약을 펼친 조선대

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며 완승을 거뒀다.

광주여대는 이어 열린 여대·일반부 광주 예선전에서 호남대를 세트스코어 3-0(25-13 25-15 25-14)으로 물리쳤다.

이번 예선은 단판 승부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승리한 조선대와 광주여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공모 선정

광산구 임곡초·북구가족센터 대상 소외지역 아동 스포츠 복지 실현

광주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공모에 최종 선정돼, 찾아가는 체육관 사업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학교나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대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가 부족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체육회 사업 중 하나다.

광주시체육회는 올해 사업 대상지로 광산구 임곡초등학교와 북구가족센터를 선

정했다. 특히 북구가족센터는 지난해 광주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체육 활동 확대를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스포츠버스 사업을 통해 VR 스포츠 게임 체험, 뉴스포츠 종목 체험, 작은운동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포츠 스타 초청, 재능기부, 푸드트럭 운영 등과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마련해 청소년의 체육 참여와 흥미 유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도 복지의 중요한 축”이라며 “더 많은 복지시설과 가족센터 등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체육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체육회, ‘리더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공모’ 최다 선정

목포·순천·광양 등 3개 클럽 클러스터 훈련 체계 구축 기대

전라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리더스포츠클럽 공모에서 전국 최다 클럽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5년 단체경기종목 리더스포츠클럽 집중훈련캠프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전남의 3개 클럽이 최종 선정돼 총 3억 원(클럽당 1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리더클럽을 배출한 사례다.

이번 사업은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단체경기 종목이 부진했던 배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유소년 발굴 및

선진형 훈련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지정 및 공공 스포츠클럽이 참여했으며, 전남은 축구와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냈다.

선정된 클럽은 △목포스포츠클럽(서울 마포스포츠클럽과 공동 참여, 축구) △순천스포츠클럽(여수·광양·영암 등 3개 클럽과 연계, 축구) △광양스포츠클럽(전남 최초 아이스하키 단독 리더클럽)이다.

이들은 리더클럽으로서 클러스터형 집중훈련캠프를 주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광양스포츠클럽은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는 아이스하키 분야에서 단독 선정돼, 지역 내 새로운 스포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클럽에는 최대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전담 매니저·우수지도자·트레이너·분석관 등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또 국내 집중훈련, 원포인트 레슨, 미니 리그 및 교류전 등 자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져, 지속 가능한 선수 육성 구조가 클럽 중심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체육회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11개 클럽·38개 프로그램이 선정돼 13억6000만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선정으로 지역 간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와 클럽 운영의 내실화에도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최동환 기자